“세계경제위기 대안 승시에서 찾아야”

〈僧市〉

김지하 시인, 동국대 정각원 법회서 강조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정각원(원장 법타스님)은 김지하 시인〈사진〉을 초청해 지난 1일 교직원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특강에 나선 김지하 시인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화엄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스님들의 물물교환 시장 승시(僧市)에 주목하며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김지하 시인은 “미국 월가(街)의 슈퍼버블이 폭발했고, 금융자본주의의 카지노적 행태를 비판하는 대규모 반발이 80여 개국 1700여 개 도시에서 매일 거듭된다”며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낸 경제학은 종언을 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시아의 불교, 특히 화엄불교와 선(禪)에 토대한 변혁적 생명학으로 새로운 녹색당을 일으켜야 한다”는 유럽 녹색당 인사의 고백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세계경제 위기를 고민하며 그가 꺼내든 화두는 승시였다. 승시에 깃든 정신은 〈화엄경〉에 나타난 ‘동진불염(同塵不染) 이생상도(利生常道)’의 경지다. ‘장바닥의 먼지는 함께 뒤집어쓰되 탐욕에는 결코 물들지 않을 것. 이것이 중생의 삶을 이롭게 하는 항상된 진리의 길’이라는 뜻이다. ‘장바닥에서 먼지를 함께 뒤집어씀’은 교환과, ‘탐욕에는 결코 물들지 않음’은 호혜와 연결된다. 곧 호혜가 종교적 자선이 아닌 기본적인 시장질서로 내재된 것이 불교의 경제관이란 주장이다.

따뜻한 자본주의와 ‘착한 경제’ 역시 교환과 호혜가 융합하는 불교적 시장경제와 닮아

최근 회자되는 ‘따뜻한 자본주의’나 ‘착한 경제’ 역시 교환과 호혜가 융합하는 불교적 시장경제와 닮아 있다. 김지하 시인은 “저자거리에서 손을 내밀다, 곧 십우도에서 깨달음의 극치를 상징하는 입전수수(立廛垂手)의 현대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돈과 마음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당연히 융합되어야 하고 나아가 돈의 축적과정은 마음의 깨달음 즉 성불(成佛)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불교계의 전향적 자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지하 시인은 1969년 군사독재 권력의 부패상을 풍자한 시 ‘오적’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반체제 저항인사로 떠올랐다.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으며, 1990년대부터는 생명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 〈황토〉〈타는 목마름으로〉 등의 시집을 냈고, 아시아 아프리카작가회의 로터스상, 세계시인대회 ‘위대한 시인상’을 수상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인권 현황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전국 사찰법당 구조물 설치…직원소양 교육

“장애인 참배 가능하도록 하겠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의 인권 현황과 중요성을 주제로 환담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인권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인간존중과 인간평등이 인권업무의 핵심인데 이는 곧 종교, 특히 불교적 가르침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전해달라”고 감사인사를 건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우리 사회의 인권사각지대에 놓은 많은 분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여러 차별문제가 있겠지만 종교적 차별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법당 참배를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했던 일에 대해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법당은 장애인들의 참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전국 사찰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들의 법당 참배가 가능하도록 직원 소양교육과 구조물 설치 등을 시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아는 만큼 지킨다

조계종 문화부 ‘안내서’ 발간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개념정립과 활용을 위한 안내서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발간됐다. 사진과 영상 및 출판물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첨부된 안내서는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분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하는 등 총 3부로 편제됐다. 특히 그간의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중에서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눈 첫 공식 문건이다.

실용편에서는 2장 ‘불교문화지적재산권 관련 사례와 대처방법’을 통해 종단의 사찰 및 관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대별해 관련 대처방법까지 제시했다. 사찰과 실무자들은 중단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법률적인 대처방법을 쉽게 숙지할 수 있게 짜여졌다.

3장은 이에 부응하는 실용편이다. 실무자들이 외부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시 참조할 수 있으며 사찰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실무적 내용들이 충족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종단의 수많은 지적재산권을 보호 관리를 위해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가 중요하다”며 “종단 내외의 불교문화재지적재산권을 실무자용 안내서로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지난 6일 말했다. 김종찬 기자 kimjc00@ibulgyo.com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스님 임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에 혜일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에 혜일스님(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그동안 연 40여억 원을 모금했는데 사무총장이 새롭게 임명된 만큼 연 80억 원대로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혜일스님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장인사로써 각오를 다졌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社告

탈북주민(새터민)에게 이불을 지원합시다

불교신문과 안성 칠장사가 공동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매월 250여명의 탈북주민이 정착교육을 받은 하나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지원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시다.

- 주 최: 안성 칠장사 · 불교신문사
- 주 관: 안성 칠장사
- 후원계좌: 농 협: 351-0303-0852-33 (이불 1채 2만4000원)
- 예 금 주: 칠장사
- 연 락 처: (031)673-0776

불교신문사

‘종단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한다

결사추진본부, 23일 재가 종무원 대중공사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가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재가종무원 대중공사를 시행한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결사 동참을 유도하고 불자이며 종무원으로서의 자기성찰과 쇄신을 목적으로 마련된 재가종무원 대중공사는, 청규 제정과 실천 등 결사의 모범 창출에 나선다. 차·팀장 행정관 주임사원 등 각급 대중공사를 거쳐 오는 23일 전체 대중공사를 열어 결사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내년 1~2월중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을 대중공사의 날로 지정,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대중공사 운영은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재가 종무원들로 꾸려진 별도의 기획운영팀이 전담하며, 팀장은 박정규 호계원 사무팀장이 맡았다.

기획운영팀은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회복지재단, 불교신문사, 조계종출판사, 불교문화재연구소 등 부설기관에서 일하는 재가불자로 구성됐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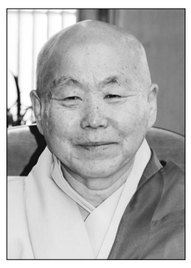
군법당 건립 ‘십시일반’

화성 신흥사 성일스님 서봉사 봉래문중 심우회

1000만원씩 보시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스님〈사진〉과 대구 서봉사 봉래문중 심우회가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불사에 기금 1000만원씩 쾌척했다.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스님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불사에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성일스님은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1만3000평 규모로 조성중인 부처님 교화공원과 명상숲길 불사로 인해 군법당 건립불사에 더 많은 기금으로 동참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어린 이청소년포교에다가 교화공원불사까지 진행하시느라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줘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건넸다.

또한 대구 서봉사 봉래문중 심우회(회장 명전스님)는 지난 11월24일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기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심우회 측은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이 종교적인 위로를 받아 본인의 임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과 건강한 몸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바로잡습니다

2774호 1면 최광식 문광부 장관 인터뷰 기사에서 ‘방제시스템’이 아니라 ‘방재시스템’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12학년도

동학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입학자격 _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2012년 봄 사미니계 수계자 2차 입방 가능)
■시험과목 _ 면접, 염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증명사진 2매
■원서교부 _ 동학사승가대학 종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준 비 물 _ 만의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세면도구
■원서접수 및 마감 _ 2011년 12월 9일(음11월 15일) ~ 2012년 1월 12일(음12월 19일)
■시험일시 _ 2012년 1월 13일(음12월 20일), 1월 12일 오후 4시까지 도착
■문 의 처 _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042)825-2570, 팩스: 042)825-6068

동 학 사 승 가 대 학

주지 견성
선덕 해주
학장 법성

동학사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전문과정 응시자격 _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니.
■특 전 _ 전문과정 2년 졸업자는 종단 승가대학원령에 의거해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모집인원 _ 10인 이하(상주 및 통학 가능)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학림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승가대학졸업(예정)증명서 (6) 수행이력서 (7) 학업계획서 (8) 사진 2장(3×4)
■원서교부 _ 동학사승가대학 종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원서접수 _ 2011년 12월 9일(음11월 15일) ~ 2012년 1월 12일(음12월 19일) (동안거 해제 후 2차 방부 가능)
■전형일시 _ 2012년 1월 12일(음 12월 19일) 오후 1시
■전형방법 _ 면접 및 구술시험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문 의 처 _ 동학사 종무소 전화: 042)825-2570, 팩스: 042)825-6068

동학사화엄승가대학원

주지 견성
선덕 해주
학장 법성

최초 비구니 강원의 전통 속에서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여법한 수행자들의 교육도량 동학사승가대학·화엄승가대학원